“아, 벌써 하데스님께 향하는 첫번째 관문을 통과한 오르페우스! 역시 최강 최흉의 머저리군요! 투철한 사랑의 힘으로 어디까지 가는겁니까! 이런 멋진 날에는 인터뷰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럼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페우스가 손가락을 튕기자 관문을 막 통과해 기진맥진한 오르페우스가 소환된다.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에 경계를 하듯 무기를 움켜쥐는 오르페우스.

“아아, 가여운 것. 아직도 이러고 있군요. 지옥 여러분, 에스카토스 시즌 666의 주인공 오르페우스에게 따뜻한 동정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괴물들의 비웃음, 박수, 야유

“…?”